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노선과 정치적 함의

김규범

이 연구는 김일성 집권기 강조되었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하 “창조적 적용”으로 약칭) 담론을 주제로 하며, 연구의 목적은 이 담론이 제기된 배경과 발전과정,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는데 있다.

박헌영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숙청이 한창이었던 1953년 초, 조선노동당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실천에 있어 이론적 원칙과 소련의 경험만 강조하던 해방 직후의 기초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맑스-레닌주의”의 변형을 의미하는 동시에 심대한 정치적 변화를 예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창조적 적용”이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시작된 탈-스탈린화 사조에 맞대응하여 제기된 주장이며, 50년대 말 불거진 중소갈등으로 인해 소련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탈-소련화와 주체사상의 과도적 형태인 “창조적 적용”의 의미를 큰 틀에서 규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첫째, “창조적 적용”은 스탈린 사망 이전부터 북한 정계에서 고조되었으며, 특히 박헌영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는데 활용되었다. 둘째, 중소갈등이 전개되기 이전인 1957년 북소관계는 이미 회복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 시점 소련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뒷받침하는 “창조적 적용”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과 소련의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적 적용”이 제기된 원인과 이에 대한 소련지도부의 태도 변화과정을 다시 토론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 수정·보완을 시도한다.

김규범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동국대학교 북한학전공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 중국, 소련의 자료를 이용하여 1950-60년대 북중관계사와 북한정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관계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 논문으로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재론”(2019)이 있으며, 역서로 “최후의 천조”(2017)가 있다.

Date & Time: November 22, 12:00-13:00

Place: SNUAC #406 (4th Floor)